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구 요비 (읍) 신부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 제자 마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 간에 건강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10월 30일 기공미사로 시작한 모곡(보리울) 피정의 집 공사는 강원도의 추운 겨울을 무사히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4월 성주간 전례와 부활대축일 미사를 회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현지에서 봉헌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박보형 아우구스티노 소장님이 진두 지휘하는 현장의 공사는 노동자 분들의 아무런 사고 없이 진척되어, 현재 외부 건물이 마무리되고(전체 공정의 85%정도 진척), 이제부터는 내장 마감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기초공사를 할 때 현장 인부들께서 “산속에 대형빌딩을 지으시려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많이 쓰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나와 절친한 프라도 신부님 한 분이 “신부님이 어디 강원도 산골에 화려한 호텔을 짓는대며?”라고 할 정도로 유언비어도 돌고 있습니다.

‘모도 건축’의 젊은 건축가 부부께서 감리뿐 아니라 우리의 감독관처럼 철두철미하게 공사 전반을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기꺼이 너그럽게 모금을 봉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회원들의 은근과 끈기와 저력을 보며, 저는 기도 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지금 우리 안에 기적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경탄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참 제자 마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마주치는 여러 난관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들을, 인내와 대화, 기도와 사랑 안에서 풀어 나아갈 때,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구원 체험이 선포되는 하느님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향할 때,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여기에 깃들여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참 제자 마을’의 회원 한 분 한 분이 모곡 피정의 집을 짓고 앞으로의 공동체적인 삶을 함께 준비하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에페소 4, 13) 은총의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겨울에 틈나는 대로 공사 현장을 방문하다가 눈 덮인 산속으로 들어가 보니, 새로운 땅이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념은 “모곡의 우리 산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북향에 자리잡아 돌이 많고 산이 높아 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산속을 둘러보며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은, 돌이 별로 없고 야산처럼 평지가 많아, 대략 13,000평~15,000평 정도가 밭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이름 모를 야생화와 나물 류는 물론, 진달래 군락들, 두릅나무 군락, 산수유, 산초, 뽕나무 등 우리에게 유용한 나무들도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제에는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이곳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아주 큰 골짜기입니다.

이 지역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우리 각자가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모든 일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 구원 사건이 되도록 가꾸어갈 때에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농부가 되자 !

박동수 안드레아

1. 들어가는 말

6·25 전쟁 당시 미국은 무상원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전쟁고아들, 그리고 기독교 종교단체 등을 통해 밀가루를 주기 시작한지 60여년 만에, 한국밀은 사라지고 수입밀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먹거리로 자리잡았다.

FTA가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체결된다면, 이 땅에 농업은 없다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옛날에 농업 인구가 80%일 때 공업화를 위해서 저국가 정책을 써서, 지금의 농업 인구는 200만 정도로 줄었다지만, 그래도 수지를 못 맞추는 소농들은 계속 몰락하여 이농할 것이다. 정부는 전업농이라는 이름으로 대량화, 규모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텐데. FTA 피해자금 64조원은 바로 대규모화된 전업농에 지원될 듯 싶다.

2. 전업농 생산 방식이 올바른가?

전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한국적 생산방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말로는 친환경이라 하겠지만, 실은 환경 파괴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요즈음 전업축산이란, 대량사육, 밀식사육을 말하는데, 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항생제, 성장촉진제 같은 약품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면역력 저하에서 오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문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전업농을 하려면, 친환경은 커녕,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 결국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할 수 있는 한, 식량작물을 심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농사는 대량생산이 아니면 밀진다는 현실은 다 알고 있지만, 해야 한다. 미국-중국 농민이 한국 사람 건강을 생각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업 방식이 아니라, 오랜 시절부터 한반도에서 농사지었던 방식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을에 밀, 보리를 파종하고, 봄에는 보리와 밀 사이에 콩, 팥, 채소, 옥수수를 심으면, 제초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산 방식으로 모든 먹거리를 생산하고, 그 부산물과 풀로 가축을 키워 단백질을 생산해야 하지 않을까?

4. 지금의 소비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곡식을 주로 먹는 식생활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보기 좋고 크고 싼 것을 먹기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제값에 먹으려는 소비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 같은 풍요는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전업농처럼 대량생산 방식으로 투여되는 농약, 방부제, 항생제, 성장촉진제 등으로,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암, 당뇨, 비만, 불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과연 몇 %나 될까? 지금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편리함, 이기주의, 체념들로, 본인은 물론 자식까지 병들게 하면서, 운명,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길, 불행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되돌아가자.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 사상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악순환을,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

6. 우리 모두 농부가 되자!

흥미 내지 관광 형태의 체험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농사일을 하기로 해서, 1년에 30일을 하면 준회원, 1년에 60일 이상 농사일을 하면 정회원으로 하는 모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며 일하는 농사꾼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한 겁니다.

자선의 의미

진교훈 토마스 (양업문화교육원 원장)

I. 들어가는 말

자선은 한자로 慈善이라 쓴다. 자(慈)는 사랑할 자; 선(善)은 착할 선; 사전에서는 자선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는 것”, “仁慈하고 착함”; 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恩愛를 加함”이라고 한다. 예기(禮記)에서 자이감지(慈以甘旨)라는 말이 나오며, 주례(周禮)에서 자유애육(慈幼愛育)이라는 말이 보인다. 자모(慈母)라는 말은 고대에서부터 널리 쓰였다. 복사(崔光傳)와 양문제시의 비문(吳郡石像碑文)에도 자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구어에서는 자선이라는 말은 라틴어 caritas 에서 비롯하는데, 영어 charity, 불어 charité. caritas 는 carus 라는 형용사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원래 ‘드물다’; ‘귀한’; ‘고귀한’; ‘비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귀여운’, ‘사랑스러운’, ‘친애하는’, ‘존경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희랍어로는 Charis ,χαρις는 “그리스도인의 사랑(Christian Love)”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Zedakah 라고 하는데 ‘자선’과 ‘정의’, 즉 공정함을 나타내며, ‘베풀다’는 뜻이 아니라 ‘해야 할 당연한 행위’를 뜻한다.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자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선을 중시해 왔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자선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타산지석으로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올바른 자선에 대해서 묵상해보기로 하자.

II. 불가(佛家)에서는 자선에 대하여 보시(布施)라는 말을 사용한다.

육바라밀(六波羅密)·십바라밀(十波羅密)·사섭법(四攝法) 등의 제 1 의 덕목(德目)은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말한다. 자비심을 보여주는 보시(布施)는 중생구제(衆生救濟)를 목표로 하는 이타정신(利他精神)의 극치이다. 보시를 행할 때, 베푸는 자(施者)도 받는 자(受者)도, 그리고 베푸는 것(施物)도 모두가 본질적으로 공(空)한 것이므로 이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것을 삼륜체공(三輪體空) 또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고 한다. 보시는 이중시(二種施), 삼종시(三種施), 사종시(四種施), 팔종시(八種施)로 나뉘어진다. 이중시는 재시(財施), 법시(法施)를 말하고, 삼종시는 재시, 법시, 무외시(無外施)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종시를 널리 채택한다.

재시(財施)는 능력에 따라 재물을 보시하여 재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고, 법시(法施)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아는 만큼의 올바른 불법을 설명해주어 그 사람의 수련을 돕는 것이고, 무외시(無外施)는 무재칠시(無財七施)라고도 말한다. 우리는 특히 무재칠시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無財七施 (무재칠시, 재물이 없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보시방법 일곱 가지)

1). 안시(眼施) :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시가 된다.

2). 화안열색시(和顏悅色施) : 자비롭고 미소(微笑)띤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의 잔잔한 미소’가 바로 안시와 같은 개념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늘 싸우는 표정들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성난 표정, 그리고 무심한 표정은 사회를 삭막하게 하고 서로 간에 말 없는 긴장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얼굴에 화기에애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소중한 보시가 된다.

3). 언사시(言辭施) :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늘 험악한 말들을 쉽게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 같은 곳을 가보면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언사는 망발이다. 부드럽고 친절하며 예의바른 말 한 마디는, 자신의 인격을 나타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보시행이 된다.

4). 신시(身施) :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신시다. 이것은 몸으로 베푸는 보시행이다.

사람을 만나면 공손한 자세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른을 만나면 머리 숙여 인사할 줄 알고, 몸으로 남을 돕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몸으로 베푸는 보시행이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몸가짐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안겨 주는 보시행이다.

5). 심시(心施) :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마음가짐을 항상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사회는 한결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6). 상좌시(床座施) :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젊은이들이 노약자들에게 자리 양보하지 않고 자는 척 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약자들에게나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소중한 보시행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방사시(房舍施) : 사람을 방에 재워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재산의 중요 한 목록으로 생각하는 요즈음 사회에서는 무재시라고 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미 있는 집에 사람을 재워주는 것이 돈 드는 일도 아니므로 무재시로 분류했을 것이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은 때, 집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아름다운 보시행이다. 순례자나 여행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Ⅲ. 이즈람에서 자선의 의미

이즈람에서 자선에 해당하는 말을 그들의 성전인 꾸란에서 찾아보면, 자선의 뜻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휘는 인파끄(infaq, 인정을 베푸는 것), 이흐산(ihsan, 좋은 행동), 자카트(zakat, 성장 또는 정화; 오늘날은 세금제도) 및 시드끄(sidq)의 어원에서 파생된 사다까(sadaqa)이다. 또 이 네 가지 어휘는 다 자선적인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사다까인데, 그 어원은 'sdaq' 또는 'sidq' 로서 그 의미는 '진실을 말한다.' '순수하게 되다', '정화(淨化)하다'라는 뜻이다. 믿음에 대하여 순수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타인에게 주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게 된다고 이즈람교는 가르친다.

자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나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사다까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사다까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며, 무슬림은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어떠한 보상을 원하지 않으며,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알라(하느님)로부터의 은총이다. 무슬림에게 사다까의 행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다.

알라를 기쁘게 하는 데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제각각 능력, 잠재력, 선호하는 것이 다르며, 따라서 사다까나 선행도 자기의 능력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디스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거나,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인사함으로써 공동체에 유익한 행위를 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을 돕는 행위, 주거환경은 늘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길거리에 해로운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를 곧 제거하는 것, 등도 또한 사다까(자선)에 들어간다. 돈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손쉽게 할 수 있는 모든 선행들이 다 사다까로 간주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Ⅳ. 유대교와 구약에 나타난 자선의 의미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출애 23:11), "가난한 형제를 못 본체 하지 말라"(신명 15:7),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신명 15:10),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리라"(시편 132:15), "불쌍한 사람에게 팔을 벌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뻗친다"(잠언 31:20).

탈무드는 '자선은 헌신하는 활동이요 기도의 보완'이기 때문에 '현명한 자는 기도하기 전에 자선을 행한다.'고 말한다. 또, 자선 행위야 말로 '정의(Righteousness)'의 핵심이며 이를 행하면 '떴떳하게 하느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고도 말한다(시편 17:15 참조).

재난은 인간의 잘못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재난이 살아남은 자에게 시련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기회가 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1) 자선은 하느님의 길을 걷는 행위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유대교 경전 토라(모세 5 경)에서 드러나는 자선의 좋은 본보기는 이삭줍기와 외국인에 대한 규정에 있다.

유대인들은 곤궁한 이웃 사람들을 생각해서 추수가 끝난 다음 이삭을 줍지 말아야 했다. 추수할 것 없는 가난한 이웃들이 이삭이라도 주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배려한 사랑의 계명이었다. "너희의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들이지 마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마라. 너희 포도를 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을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따먹도록 남겨 놓아라."(레위 19,9-10)

나그네살이 하는 외국인들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에게 잘해 주는 것 역시 자선이 한 방법이었다. “너의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마라. 너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을 네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네 몸처럼 아껴라”(레위 19,33-34).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길을 걷는 것”이며 축복의 대상이었다.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야훼께 빛을 주는 셈. 야훼께서 그 은혜를 갚아 주신다.”(잠언 19,17).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토지는 하느님의 소유이므로 소산물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웃 사랑이 권장되었다(레위 19,18 참조). 이는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따른 규정이었다. 신정 정치에서 자선 행위는 율법에 충실함이었으므로 하느님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신명 10,17-18 참조).

이는 곤궁한 이들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는” 행위였다(신명 15,11). 히브리어의 야드(yad)는 손을 편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을 의미한다(신명 15,8; 시편 104,28; 145,16; 잠언 31,20).

2) 자선은 개인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도 실천되어야 한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나) 먹게 하여라.”(출애 23,11). 이와 같이 자선의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짐승들에게도 베푸는 사랑의 행위다. *우리나라 까치밥

3). 자선은 죄 사함의 방법 : 보속의 실행 방법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 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버립니다.”(토비 12,9; 4,7-11)라는 말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자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고 하겠다.

V. 신약성서에 나타난 자선의 의미

1) 자선은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만큼 자선에 대한 아름다운 가르침은 없을 것이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옷을 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은 축복받는 조건이며 양 우리에게 들 사람들이다.(마태 25,31-46 참고). 이 여섯 가지 가르침에 수덕 신학은 집도 절도 없이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 주는 것을 삽입하여 일곱 가지 선행으로 가르쳐 왔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해 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이 지구상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작은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많다.

2) 사도 야고보는 자선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15-16)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한 성 그레고리오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서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며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시오.”라고 권고하였다.(Oratio 14, De Pauperum amore, 38,40.3)

3) 자선은 수행(修行)이다. 극기(克己)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의 것을 잠시 관리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선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린다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물욕에 대한 강한 욕구를 억제하여 가진 것을 포기함으로써 곤궁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덕행이다. 인간의 삶에 재물은 대단히 중요하나 신앙의 정신으로 이를 포기함은 사랑의 실천이자 수행의 한 방법이므로 성덕을 쌓는 좋은 수단이 된다.

VI. 올바른 자선

자선(慈善)이란 그리스도교회나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자주 말하고 실천하는 선행(善行)이므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구세군 신도들이 거리에서 자선냄비를 차려 놓고 종소리를 울린다. 그것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톨릭에는 자선주일이 있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특별 헌금을 바친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명단이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한다. 자기과시가 요란하다.

우리 사회는 무수한 자선단체가 있고, 자선사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선을 장려하는 일은 훌륭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선에도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선은 미덕이 아니며, 돈을 모으느라고 행한 나쁜 짓을 보상하려는 대상행위일 뿐이라고 냉소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자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베푸는 자와 베품을 당하는 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하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베푸는 자는 우쭐대거나 오만 방자하기 쉽고, 그래서 베품을 당하는 자는 자존심을 상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나 비굴감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1956 년 고아원 봉사자 체험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바른 자선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자선에 임해야 하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 교회는 올바른 자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1) 자선은 가식(假飾)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자선은 이미 지상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하느님 보시기에 큰 공로가 되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 6,1-4).

2) 자선은 정화(淨化)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새자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새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루카. 11,37-41)

3) 자선은 죄 사함의 방법 : 보속의 실행 방법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 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버립니다."(토비 12,9; 4,7-11)라는 말씀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가르침은 자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죄는 인간을 자신과 이 세속과 악령의 지배에 놓이게 한다. 죄의 상태에서 발길을 돌려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감은 회개이며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한다. 이는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난다. 교회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전통적으로 보속을 강조해 왔다. 그것은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었다. 교황 성 대 레오는 관대한 마음으로 회사하는 것을 강조하여 "회사로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대함 그 자체가 큰 재산입니다."라고 하였다.

4)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선을 받기신다.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억하신다."(사도 10,4; 잠언 22,9). 따라서 자선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1 디모 6,18-19).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 원로들에게 한 고별사에서 여러 가지 당부한 다음 자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를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라고 하셨다.

VII. 나가는 말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자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표현을 달리하기도 하나 신자들에게 자선을 할 것을 가르쳐왔다. 자선은 부자만이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장애인도, 무식한 사람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선은 감상적으로 불쌍한 사람에게 동냥을 주거나, 인정 사정없이 가렴주구나 착취를 해서 축재를 한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보상행위를 하는 수단이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남는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말에 ‘보아 준다’, ‘들어 준다’, ‘먹어준다’, ‘입어준다’는 좋은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줄 것이 있다. 받아 주는 것도 자선이다. 누구나 사랑을 하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선을 할 수 있다.

자선의 모범은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앳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돌보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아의 상태에서 이웃을 돌보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선의 길로 가는 것이다.

참 제자 마을 후원 봉헌자 명단 -가나다 순

2006년-2011년 : 구요비(욥, 신부님) 강명자(비르짚다) 강은주(루시아) 강희숙 고옥자(수산나) 공명순(소피아) 곽후근
 구요나(요나) 구화사(글라라) 국옥희(마리아) 권순철 권준상(데레사) 김미(바실리사) 김경미(카타리나) 김경숙(마리안나)
 김계순(가밀라) 김기경(세라피나) 김동성(베드로) 김라미(바울라) 김문미(안나) 김문숙(루시아) 김문신(모니카) 김문혜(안젤라)
 김문희(엘리사벳) 김미희(비비안나) 김복선(마리아) 김부형(도미딜라) 김상우(베드로) 김선규(바오로) 김세원(엘리지오)
 김숙자(가시미라) 김순분(아네스) 김순옥(안젤라) 김순희(로사) 김애란(안젤라) 김애자(로사) 김연례(세실리아) 김연이(데레사)
 김영수(베드로) 김영순(울리아) 김영임(안나) 김영자(글라라) 김영희 김오순(마리아) 김옥선(안젤라) 김옥희(아셀라)
 김월례(아가다) 김은실(데레사) 김을영(젼마) 김인숙(첼레스티나) 김인오(베드로) 김정문(바오로) 김정숙(베로니카)
 김정심(글라라) 김정임(젤뜨루다) 김종규(요셉) 김종배(요한) 김종원(안젤라) 김주현 김지연(베리파스) 김현숙(루치아)
 김희순(아가다) 나성애(마리아) 나희균(크리스티나) 남성일(요한) 노말혜(글라라) 노미향(스테파니아) 류현경(발바라)
 문수정(카타리나) 문영준(야곱) 문희제(그렌시아) 박(스테파노) 박광용(아우구스티노) 박덕관(안드레아) 박동수(안드레아)
 박병식(베드로) 박상률(가브리엘) 박상숙(데레사) 박수연(로사리아) 박형래(바오로) 박화옥(글라라) 방대순(아가다)
 방선녀(가타리나, 선종) 배윤자(레지나) 백남희(도미니카) 백명주(아네스) 백영국(세례자요한) 백인필(모세) 백진주(아네스)
 서영자(안나) 서영준 석용식(라우렌시오) 성계순(까리따스) 성낙권(바오로) 성순이(로사리아) 성신숙(마리아) 성필규(마르파)
 성하영(프란치스코) 소재영(토마스모어) 손수(아네스) 송광옥(아네스) 송봉연(아네스) 신경미(젼마) 신인애 신정숙(로사리아)
 심복자(아네스) 심우순(베로니카) 안상용(루카) 안성순(희순루치아) 안여주(울리엤타) 안여현(엘리사벳) 양명근(요셉)
 양명신(토마스아퀴나스, 선종) 양선근(세실리아) 양수미 양옥보(마그리나) 양인숙(에밀리아) 양인혜(루시아) 염정순
 오두현(프란체스카) 오웅(요한) 오종석(요한) 오홍자(아네스) 원동희(체칠리아) 유윤숙(가타리나) 윤기련(아네스)
 윤상기(디모테오) 윤숙희(마리아) 윤여정(루카) 은경희(소화데레사) 이강희(요한) 이경자 이국휘(대건안드레아) 이근수(가브리엘)
 이난호(짚다) 이동무(헬레나) 이동진 이두봉(바오로) 이두희(미카엘) 이명숙(테플라) 이명용(프란치스코) 이문영(레오날드)
 이범수(베드로) 이병주(요셉) 이상윤(도미니코) 이성은(세실리아) 이순덕(마리안나) 이승신(미카엘) 이승주(헨리코) 이영란
 이영자(젼마) 이은용(로사리아) 이의열 이인석(프란치스코) 이정화(요안나) 이준(필립보) 이준형(여호수아) 이철구(브루노)
 이해정(토마스아퀴나스) 이현숙(울리아) 이형주 이희정(마리아이사벨라) 임계순 장경훈(토마) 장두식(니콜라오)
 장정환(대건안드레아) 장현정(글라라) 전미영 전영순(레지나) 전완석 전해숙(루시아) 전해은(마리엘라) 정남순(마리아)
 정숙자(루시아) 정연경(보나) 정영란(마리아네스) 정은정(소피아) 정태진(안드레아) 제혜경(미리암) 조경희(로사) 조금숙
 조윤경(마리스텔라) 조정남(데레사) 조중진(미카엘) 조치성(다미아노) 조형숙(아네스) 주명화(엘리사벳) 지선기 지원기
 지원배(요한) 지준기 지희용(요셉) 지희용(토마스아퀴나스) 진교훈(토마스) 채수형(부덴시아니) 천양미(울리안나) 최광동
 최병준(십자가의성요한) 최선희(쁘리나) 최소자(아가다) 최영숙(젼마) 최옥근(수산나) 최완순(안젤라) 최원철(베드로)
 최정열(엘리사벳) 최제욱 최종덕(데레사) 최준호(안토니오) 최창주(분도) 표경희(마리안나) 하윤영(마리안나) 하차연
 한복연(아네스) 한봉주(아가다) 홍성례(데레사) 홍순미(글라라) 홍순분(엘리사벳) 홍순숙(미카엘라) 홍순재(스텔라)
 홍승수(라파엘) 홍양희(안토니오) 홍지훈 홍한림(스콜라스티카) 홍해숙(마리아) 황윤순(에디타) 황적인(토마스) 황춘숙(데레사)
 Pascal Anne Maria <이상 228명, 부부 봉헌자 52명, 2011년 신입 봉헌자 82명>

2012년 1월 현재 신입 : 강다원(에밀리아) 김나윤(글라라) 김봉옥(짚다) 김주연(헬레나) 손석술(로사리아) 안성희(카타리나)
 최달호 <이상 7명>

기업체 후원 : 노루홀딩스(주) 양정모, 대모엔지니어링(주) 이원해, 범양정기 이근범, 용선정공 권오홍, 우림하이테크(주)
 문길주, 조광정밀(주) 김용식 <이상 6사>

성물 봉헌 : 강은주(루시아) 국옥희(마리아) 김정임(젤뜨루다) 나희균(크리스티나) 박향순(엘리사벳) 손수(아네스) 안상용(루카)
 양옥보(마그리나) 이난호(짚다) 이동무(헬레나) 이순덕(마리안나) 전해은(마리엘라) 정영란(마리아네스) 최창주(분도)
 홍영숙(림바니아) <이상 15명>

봉고차 봉헌 : 김종성(베드로) <이상 1명>

*** 최근 2년간 후원 봉헌금**

연도	납입인원	입금총액
2010	54	73,180,000
2011	145	160,045,484

<2011년 월별 후원 봉헌금 현황>

월	기존회원	신입회원	금액
1	26	1	2,879,000
2	30	8	7,085,000
3	49	14	3,569,725
4	41	9	34,127,863
5	45	8	3,385,000
6	46	1	2,990,000
7	46	1	2,435,000
8	55	4	16,361,400
9	60	10	4,442,425
10	71	7	20,298,000
11	80	14	26,247,000
12	84	15	36,225,071
합계	145	92	160,045,484

* 피정의 집(100평) 건립에, 6억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 여러분께 신규회원 가입 및 봉헌을 적극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회원들께는 구요비 신부님께서 ‘복음 우리의 길’을 서명하여 무료로 증정하십니다.

* 구요비(음) 사제 서품 30주년 글모음 ‘복음 우리의 길’을 17,000원(30%할인)에 공급하오니, 구입 바랍니다. 판매대금 전액은 피정의 집 건립 봉헌금으로 쓰여 집니다.

* 모곡 피정의 집 경당에 필요한 제대, 십자가, 감실, 그리고 14처, 성모상, 스테인드글래스 등에 대한 성물 봉헌자를 찾고 있습니다.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 후원 봉헌금 및 월 회비(*구좌 회원) 입금 계좌

1002-641-017945 우리은행 양업문화 참제자마을
031601-04-164956 국민은행 양업문화참제자마을
01168-12-001493 신용협동조합 양업문화교육원

<연락처> 전화: 02-853-1104~5 팩스: 02-853-1105,
E-Mail : kujop@catholic.ac.kr

* 2011년 10월부터 구좌 회원제로 전환하고(1구좌당 월 10,000원), 참 제자 마을 2단계 사업인 ‘피정의 집’ 건립을 위한 후원 봉헌금을, 일시금 납부, 약정 납부, 구좌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 제자 마을의 목표**

강원도 홍천 ‘피정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가톨릭 신앙의 깊은 영성을, 슈브리에 신부님의 길을 본받아 살 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건강한 공동체

*** 참 제자 마을의 영성 :**

삼위일체 신비와 복음적 가난의 실천

- 자기 비움
- 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적**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배우며, 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터.
- **쉼터 - 나눔의 집**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터
- **돌봄과 나눔의 영성적 녹지 공간**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의 터이자, 순수 자연 속의 묵상의 터

*** 매일 12시 정오**

참 제자 회원 모두가 삼종기도,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모곡 참 제자 마을 피정의 집 기공 기념 미사**

참 제자 마을 조합원(12 가구)께서 2010 년 7 월 구입하신 땅 일부에 진입로 사용 허가를 해주셔서, 10 월 4 일 공사 시작, 10 월 30 일 오전 11 시에는 140 여명이 참석, 기공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 2011년 12월 참 제자 모임 정기 1일 동계피정**

12월 11일(일) 성북동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53명이 참석하여 열렸습니다. 진교훈 양업문화연구원장님께서 ‘자선의 의미’라는 주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 2011년 성탄 축하미사**

12월 24일 20시 프라도의 집에서, 35명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미사를 드리고 성탄을 축하하였습니다.

*** 구 신부님 저서 ‘복음, 우리의 길’ 출판기념회**

2011년 12월 29일 오후 7시에 구요비 신부님 서품 30주년 기념 글모음 출판 기념미사가 성북동 프라도의 집에서 93명이 참여하여 봉헌되었습니다.

*** 참제자 모임 회원님들 소식**

정숙경 루피나 자매님의 결혼식이 12 월 17 일 12 시 30 분 압구정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 참 제자 마을 회원-은인들의 추도 미사**

2011 년 12 월 5 일 양명신 토마스아퀴나스 형제님, 2012 년 1 월 25 일 김영자 가타리나 자매님의, 1 주기 추도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 2012년 성주간 행사 및 부활대축일 미사 안내**

4 월 5~8 일 모곡 ‘피정의 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